Contents

이슈분석 … 02

Ⅰ. 2010년 주요 산업별 경기전망
Ⅱ. 2010년의 암초 인플레이션, 무엇이 문제인가?
Ⅲ. 미국 주택시장의 잠재적 위험, Option ARM
Ⅳ. 한국의 출구전략 실행논의와 시사점

경제동향 … 12

Ⅰ. 해외경제
Ⅱ. 국내경제
Ⅲ. 중소기업
Ⅳ. 금융시장
Ⅴ. 자금흐름

CEO라운지 … 18

Ⅰ. 역술로 본 2010년 경제전망
Ⅱ. 중소기업 CEO의 '경영 혜안'을 위한 지침(I)
Ⅲ. 부동산시장 동향 및 이슈
Ⅳ. 조직활성화를 위한 IBK의 변화관리 컨설팅
Ⅴ. 와인에 관한 그 첫 번째 고찰

경제지표 … 28

Ⅰ. 2010년 주요 산업별 경기전망

1. 2010년 경제상황의 산업별 영향

주요 산업경기의 회복세 속에 회복정도는 산업별로 차별화될 전망

■ 전반적 산업경기는 기저효과로 인해 2009년보다는 개선될 것이나,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

○ 주요 선진국은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데 비해, 신흥 공업국과 산유국들은 상대적으로 고성장이 예상

○ 국내 경제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은 수출부문일 것으로 예상

■ 산업별로는 개별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회복정도가 차별화될 전망

○ 기계, 전자, 자동차 중심의 성장이 예상되고, 조선은 신규수주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과잉 위기에 직면해 다운사이클 진입 가능성이 있음

2. 산업별 동향 및 전망

[철강] 극심한 경기침체 후, 완만한 경기회복 예상

■ 중국 철강재의 국내 유입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

○ 국제적으로는 소비 비중이 높은 중국 중심의 견조한 수요, 선진국의 재구매(Restocking)로 조강 소비증가 예상

○ 국내 철강경기 역시 주요 전방산업의 호조로 업황 회복이 예상

■ 2009년 하반기 이후의 완만한 경기 회복세에 따라 철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중국의 생산능력 증가로 인한 공급초과는 저가 수입재의 국내 유입 및 가격 하락을 가져와 국내 철강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

○ 특히, 후판부문은 조선업의 경기침체와 국내 생산시설 증가로 인해 경쟁심화가 예상

[기계] 대내외 수요회복으로 생산 및 수출이 확대될 전망

■ 경기회복으로 인한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로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할 전망

○ 내수는 이전 침체에 대한 반등 효과, 경기회복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친환경 설비 수요증대로 설비 투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수출은 EU, 중국, 중동 등 주요 기계 수출대상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 플랜트 수주 증가로 기계류 수요증가 예상

■ 녹색성장 논의가 확산되면서 친환경 설비 수요 및 투자 증대로 인해 절전기술 및 친환경 설비 관련 기계산업의 활성화가 예상

[건설] 완만한 호조 기대속 부문별 양극화 문제 남아

■ 국내 공공부문은 성장세 둔화, 민간부문은 완만한 회복이 전망되며, 해외수주는 중동·북아프리카, 아시아 중심의 호조세 유지

○ 공공부문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발주물량의 '09년 조기발주로 수주 성장세는 다소 둔화

○ 민간부문은 미분양 감소의 지속 및 재개발·재건축 수요증가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지방 미분양 보유 주택전문업체는 유동성 문제, 재건축·재개발 및 공공발주 공사업체는 수익성 악화 우려

[석유화학] 불황속 호황을 맞이했으나, 2010년은 공급과잉 심화로 어려움

■ 세계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중국, 중동의 증설 물량의 시장유입 본격화로 경기둔화 가능성

○ 2009년말부터 시작된 중동의 신규증설 물량의 출회로 향후 2년 정도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쟁심화 가능성

○ 세계경기 회복으로 보류되었던 탄소배출 감축정책 강화 예상 등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코펜하겐 기후협정 '09.12-온실가스 2℃감축 목표) 예상

[전자] 수요회복과 국내업체의 시장지배력 강화로 호조 전망

■ IT산업은 세계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 (휴대폰) 스마트폰과 3G폰 보급이 세계시장 수요회복을 견인하는 가운데 국내업체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 (반도체) PC 및 휴대폰 수요회복이 기대되는 반면, 일부 반도체업체의 유동성 악화로 공정개선 투자 지연, 공급능력 증가 둔화 예상

○ (디스플레이) 설비증설 및 가동률 상승속 신흥시장 LCD TV 수요확대로 인한 안정적 성장 전망되나,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과잉 폭 확대 및 가격하락 예상

[자동차] 글로벌 수요회복과 신차경쟁력 확보로 수출·생산량 증가

■ 국내외 경기회복과 신흥시장의 수요 증가, 각국의 자동차 산업 지원정책 효과로 세계 자동차 시장은 2008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

○ 각국과의 FTA 체결 및 신흥국 수요 증가와 제품경쟁력 상승, 경쟁국의 생산능력 감소 등으로 세계 시장점유율이 상승할 전망

○ 자동차 내수 판매는 신차구입 지원 정책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신차 판촉강화로 '08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

■ 향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한층 가속화될 가능성

[소매유통] 소비심리 회복으로 순조로운 호황 지속될 듯

■ 2010년 유통산업은 5%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가계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설비투자나 고용여건 개선으로 중산층을 중심으로 소득증가 예상

■ 업태별로는 SSM,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중심의 견조한 성장 계속될 것

○ SSM 성장은 소량구매 확산 및 근거리 소비선호 현상으로 인한 구매패턴 변화 때문임

[조선] 신조발주 감소 및 발주선박 취소, 인도연기 등으로 조선산업 정체

■ 수주 회복은 어렵고, 인도연기와 수주취소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을 전망

○ 신규 수주는 '09년보다 나아지겠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 계약의 변경과 인도연기 · 취소로 생산량 및 수주잔량은 감소

○ 조선소들의 수주경쟁으로 선가하락이 지속되며, 드릴쉽, 부유식 해양구조물 등 해양플랜트부문의 발주 증가로 국내 대형조선소의 수주는 증가 예상

■ 수익성은 원자재 가격하락과 고선가 선박의 생산으로 개선되나 부대비용 증가로 제한적

3. 시사점

주요 산업경기 회복세 속 산업별로 회복정도는 차별화될 전망

■ 글로벌 경기의 회복 분위기 속에서 세계 경제는 약 3%대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임

■ 선진국과 신흥국 및 원유 수출국의 회복속도는 차별화될 전망

○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및 산유국은 상대적으로 금융위기의 충격이 경미하고, 자원가격 상승에 따른 성장 가속화가 예상되어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전반적으로 전산업이 회복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산업 보다는 수출산업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이는 최대 수출처인 중국의 고성장세 지속이 예상되고, LCD ·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이 올해 가동률 하락으로 인한 공급부족으로 단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 산업별로는 기계 · 전자 · 자동차 등은 빠른 회복을 보이는 반면, 석유화학 · 조선은 침체될 전망

내용문의 : 여신심사부 산업정보팀 고은영 대리(02-729-6895)

Ⅱ. 2010년의 암초 인플레이션,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인플레이션 조짐이 중국 등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음

■ 2009년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결과 주식 및 부동산시장 과열을 시작으로 인플레 우려가 수면위로 부각됨

❍ 세계 각국은 '09년 세계 GDP의 3.8%에 달하는 2조 4,700억 달러(3,153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여 V자형의 경기회복을 이끌어 냈으나, 아시아신흥국 위주로 부동산가격 급등 가능성 등 인플레 우려가 제기됨

· 중국 주택가격의 경우 '09.6월에 이미 위기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12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1.0%(전년동월대비 1.9%) 상승하며 인플레 압력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중국정부는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이외에도 시중은행에 대출 억제를 지시하는 등 인플레 압력에 대비함

❍ '10.1월 지준율 인상(15.5% → 16.0%)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시행될 예정

인플레이션은 시장경제를 흔들어 국가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

■ 과연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어떠한 경제적 폐해가 있기에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에 그토록 신경을 쓰는 것일까?

❍ 완만한 물가상승의 경우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나 매우 높은 수준이거나 예측하기 힘든 인플레이션의 경우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침

❍ 인플레이션은 경제주체들의 예상여부에 따라 폐해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나 일반적으로 경제예측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발생시킴

■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채무자 부채수준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림[1)]

❍ 오늘 빌린 1,000원이 일년 후에 500원의 가치 밖에 안 된다면 과도한 채무의존형 사회로 변화하여 기업들이 채무확대를 통한 외형성장 정책에 몰두

· 우리나라의 경우 '60년대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이 '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기업의

1) 물론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가치의 하락을 개인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남. 명목가치를 실질가치(명목가치를 물가상승률로 나눈 가치)에 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화폐환상(Money Illusion)이라고 하며,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생활에서도 자주 목격됨.

과다채무와 무관하지 않았고, 중국의 경우에도 높은 인플레이션은 부동산가격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버블 형성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가계와 기업의 채무확대를 통한 부동산투기 현상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경제에 버블을 형성시켜 새로운 위기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짐

○ 또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의 하락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증가하여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킴

■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경제전반에 걸쳐 불확실성(Uncertainty)이 증폭됨

○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은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규제의 부재, 월스트리트의 탐욕 등 다양하게 설명이 가능하지만 위기의 파장이 더욱 컸던 이유는 불확실성과 신뢰의 부족임

○ 따라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 개인은 합리적인 소비생활이 불가능해지며, 기업들은 투자를 외면하고, 자금운용도 장기보다는 단기위주로 운영하게 되어 금융시장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은행의 경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대출가격, 즉 이자에 포함시킬 우려가 있어 대출금리 상승도 우려

■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도 또 다른 경제적 비용을 야기함

○ 인플레 시기에는 현금 보유 유인이 줄어들어 은행 방문 횟수나 자산구조(Portfolio)를 자주 변화시키는 비용(Shoe leather cost, 신발이 닳아서 생기는 비용) 발생

· 또한 기업과 상인들과 같은 경우도 가격변화에 따라 가격표를 자주 교체해야 하는 비용(Menu cost)이 발생

인플레 시대, Winner와 Loser는?

■ 소득의 불균형한 분배가 이루어지며 Winner와 Loser가 나타남

○ 화폐 가치 하락으로 수입업자, 사업자, 실물 자산 보유자, 채무자 등은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며 수출업자, 봉급생활자, 금융 자산 보유자, 채권자 등은 불리해짐

·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는 봉급생활자의 대부분이 피해를 입게 되어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킴

○ 케인즈(J. Keynes)는 "사회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고자 할 때 가장 교묘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것이다"라고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강조

내용문의 : 중소기업팀 이성룡 연구위원(02-729-6709)

Ⅲ. 미국 주택시장의 잠재적 위험, Option ARM

회복세를 유지하던 美 주택관련 지표들이 최근 혼조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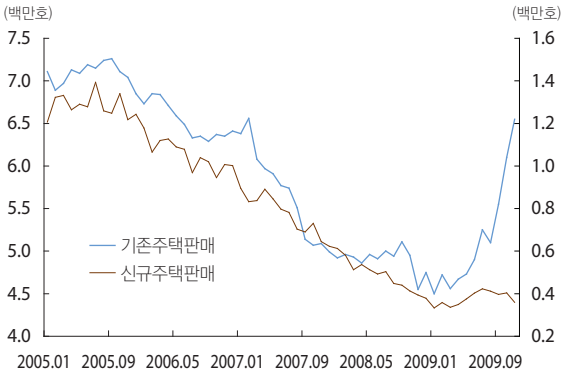
■ 美, 기존주택 판매는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신규주택 판매는 2009년 7월 고점을 형성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

❍ 기존주택 판매는 '09.1월 저점을 형성한 이후 빠르게 증가세가 확대되어 '09.11월에는 654만 호로 '07.2월 이후 최고 수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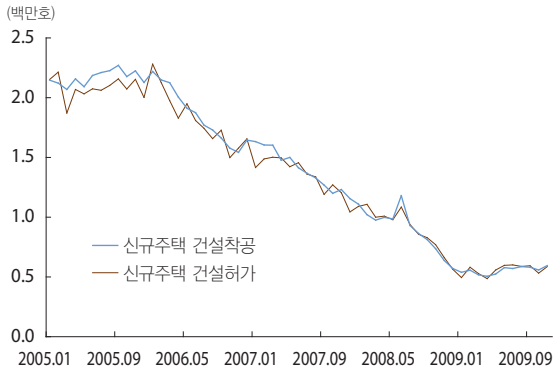
❍ 신규주택 판매의 경우 '09.7월 41만 9천 호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로 반전되며 '09.11월에는 35만 5천 호가 판매됨

・반면에 11월 신규주택 건설 착공(57만 4천 호)과 신규주택 건설을 예시하는 주택건설허가(58만 9천 호)는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

미국 주택판매 추이



신규주택 건설착공 및 건설허가 추이



자료 : Datastream

그러나 최근 프라임 모기지 시장으로 부실 확대 가능성 증대

■ 최근 외국 언론들이 Option ARM(Adjustable-Rate Mortgage) 부실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성 제기

❍ 많은 주택보유자들이 Option ARM의 금리 조정에 허우적대고 있다, "More Homeowners Struggling As Option ARMs Reset Higher", CNBC

❍ Option ARM의 금리 조정이 주택시장의 반등을 위협! "Option ARMs Threaten Housing Rebound as Resets Peak", Bloomberg

Option ARM은 과연 무엇이기에 주택시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평가되는가?

Option ARM은 주로 중간 이상의 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원리금 상환 방식을 차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프라임 모기지 대출임

❍ 월수입이 일정치 않은 자영업자와 세일즈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 등이 주요 고객층[1)]

· 이는 월상환액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편리성과 일정 소득 없이 고가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

❍ 상환 방식에는 ① 5년간 이자를 납입한 후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IO(Interest-only Payment), ② 5년간 계약조건에 명시된 최저 지불액을 상환 후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Minimum Payment, ③ 초기부터 원리금을 균등상환 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음

· Option ARM 차입자의 80% 이상이 ② Minimum Payment 방식을 선택

Option ARM은 구조적으로 부실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 월 최저 지불액만을 납입할 경우 부족한 이자분이 가산되어 원금이 거꾸로 늘어남

❍ 월 최저 지불액 납부허용기간 이후 월 상환액이 2~3배 이상 급증

❍ 대부분의 Option ARM의 경우 1~3년 이내에 조기상환할 경우 2%정도의 수수료 부과

따라서 Option ARM은 2004~2008년까지 약 7,500억 달러(936조 3,750억원) 대출이 이루어지다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판매가 중단

❍ 도입초기 0.18%에 지나지 않았던 연체율은 '05년에 1.6%, '06년에 5.7%(30일 연체)를 기록

본격적으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면 미국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

❍ Washington Post지는 '05~'06년 중 늘어난 5,810억 달러(725조 3,785억원)의 Option ARM 중 3,250억 달러(405조 7,625억원)가 부실화 될 것이라고 예측

· 현재 Option ARM을 90일 이상 연체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 계약의 37%에 이르고 있음

❍ 본격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단계에서 연체율이 급등할 가능성

· '10~'11년 Recast될 Option ARM은 1,340억 달러(167조 2,990억원)로 예상

내용문의 : 중소기업팀 이성룡 연구위원(02-729-6709)

1) 주택구입의 목적이 단기 부동산 매매를 통한 차액실현이므로 이자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우 낮은 이자율(1%~1.95%)의 단기 Option ARM을 선호

Ⅳ. 한국의 출구전략 실행논의와 시사점

2010년은 출구전략 실행논의 본격화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국내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확산되면서 2010년은 출구전략 실행논의가 구체화될 전망

○ 경기회복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나 '08년 리먼사태와 같은 극심한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은 낮고,

○ 호주, 중국 등의 기준금리 · 지준율 인상을 비롯해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금리 외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들을 정상화시키고 있는 상황

· 미 FRB의 국채매입 중단('09.11)과 MBS 매입 종료('10.3) 등 긴급금융지원 조치들로 공급된 유동성이 순차적으로 회수될 예정

· ECB 및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 미국 외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도 금융기관에 공급된 유동성을 상당부분 회수

○ 한국은행도 RP매입을 통한 지원금(18.5조원)과 외화유동성 지원금(195억 달러)을 전액 회수 완료하는 등 기준금리 외 대부분의 출구전략이 실시된 상태

■ 출구전략의 핵심은 기준금리 인상인데, 해외 주요 IB 및 국내 연구기관들은 2010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10년 들어 한국의 기준금리를 전망한 기관들은 모두 1/4분기중 50bp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

해외 주요 IB들의 한국 기준금리 전망(%)

기 관	전 망 일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Barclays Capital	1월 8일	2.50	2.50	2.80	3.00
ING Group	1월 11일	2.50	3.25	3.75	4.00
Morgan Stanley	1월 13일	2.50	3.00	3.25	3.50
BOA Merrill Lynch	1월 4일	2.50	2.50	-	-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

○ 삼성경제연구소는 GDP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각각 4%, 3% 이상일 경우는 25bp, 3%, 4% 이상일 경우는 50bp 인상될 것으로 전망

○ 하나금융경영연구소도 '10년은 금리상승기로 기준금리 인상시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2.5%~4.0%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각차가 좁혀지는 과정에서 인상시기와 폭이 결정될 전망

■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정부의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

○ 한국은행은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통하여 장기간 저금리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 또한, 경제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긴축정책으로의 전환이 아닌 금리 정상화 차원에서라도 금리인상 논의는 불가피하다는 판단

○ 정부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불안한 고용상황 등을 감안할때 성급한 금리 인상시 경기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을 더 우려하는 입장

· 정부는 현재 물가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 과열 또한 DTI규제 등 금융규제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

· 또한, 미국 등 선진국보다 앞선 금리 인상시 해외 자금유입으로 인한 원화강세 우려와 국제공조 약속 등도 현 금리기조 유지 주장의 근거

■ 따라서, 향후 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당위성 및 관철 의지에 따라 출구전략 실행여부가 결정될 전망

○ 한은은 물가와 자산가격을, 정부는 국내외 경기와 고용상황을 정책판단의 잣대로 삼을 가능성

○ 한은총재(3월) 및 2명의 금통위원(4~5월) 임기 만료와 지방선거(6월)도 숨은 변수

· 시장에서는 한은이 2월에 금리인상을 하지 못하면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나 인상여부를 타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국내외 경기회복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한 것이 사실이나,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자산버블 가능성이 점증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히 대처할 필요

○ 현재는 미국의 고용상황 악화와 일본의 디플레이션 위기, 유럽의 재정적자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경기부양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

○ 그러나, 경기회복세가 확인되는 순간 과잉 유동성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

내용문의 : 금융경제팀 이경재 선임연구원(02-729-6522)

Ⅰ. 해외경제

미국에선 경기회복 기대 상승, 중국에선 경기과열 우려 확산

■ 미국은 발표된 대부분의 지표가 호전되면서 경기회복세가 상반기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

❍ '09.12월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6% 증가, ISM 제조업 지수(55.9)는 5개월 연속 상승했고 서비스업 지수도 50.1로 확장국면으로 전환

❍ '09.12월 실업률은 10.0%로 여전히 높은 수치이지만 9월 10.4% 이후 감소 추세

■ 중국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에서는 벗어난 듯하나 은행대출 급증과 부동산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자산버블에 대한 우려가 확산

❍ '09.4/4분기 중국경제는 전년동기대비 10.7% 성장하면서 '08.2/4분기(10.1%) 이후 처음으로 10%대 성장세로 복귀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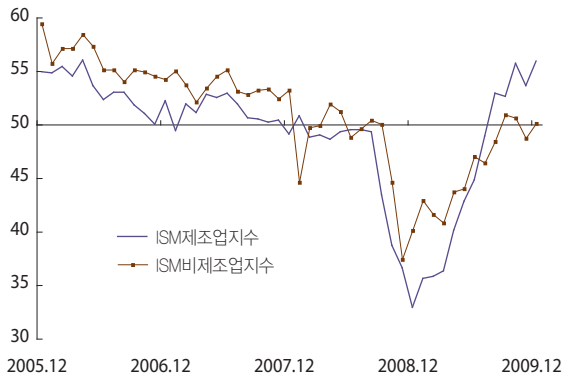
❍ 금융기관 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대출자금 중 약 20%가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09.12월 주택가격이 18개월래 최대 폭으로 상승하는 등 자산버블 우려가 확산

· '10.1.1일~20일까지 금융기관 신규대출은 9,000억 위안으로 1월 수치中 최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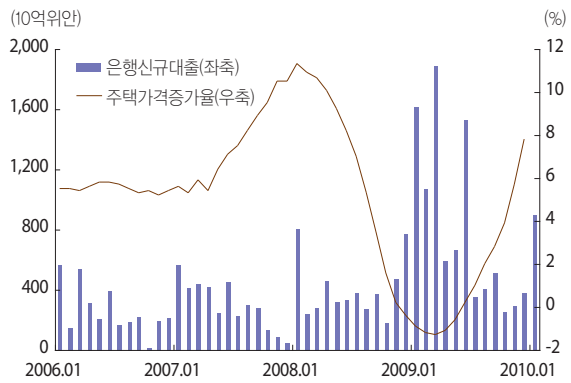
❍ 중국정부는 대출창구 및 부동산시장 규제 등을 강화하며 자산버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고자 총력

· 인민은행은 '10.1.18일부터 은행의 지준율을 0.5%p 상향조정(15.5% → 16.0%)하기로 결정했고, 중국 정부는 '09.12월 이후에만 5차례 이상의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발표

미국 ISM 제조업 및 비제조업 지수



중국 은행대출 및 주택가격증가율



주 : ISM지수는 50이상이면 확장국면, 50이하이면 수축국면을 의미. 주택가격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 Datastream

Ⅱ. 국내경제

고용없는 성장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가 당분간 국내경제의 화두

■ 실물경제로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소비, 생산, 투자의 증가세 지속

❍ '09.3/4분기 통화유통속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1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하는 등 실물경제에 돈이 돌기 시작했고, 현재는 금융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을 가능성

❍ 11월 광공업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17.8%, 서비스업 생산은 3.3% 증가했고, 소비재 판매는 내구재 매출에 힘입어 7개월 연속 증가(전년동월대비 10.0%)

❍ 특히 11월 설비투자가 전년동월대비 10.3%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대표적 선행지표인 국내수주의 경우 10월 3.0%에서 11월 56.6% 증가

■ 하지만 문제는 현재의 회복이 고용을 동반하지 않고 있다는 점(Jobless Recovery)

❍ 12월 실업률은 3.5%로 2개월 연속 상승중이나 수치적으로 높지는 않은 상황

❍ 하지만 민간부문 고용이 16.7만명 감소(공공근로자 수는 15.1만명 증가)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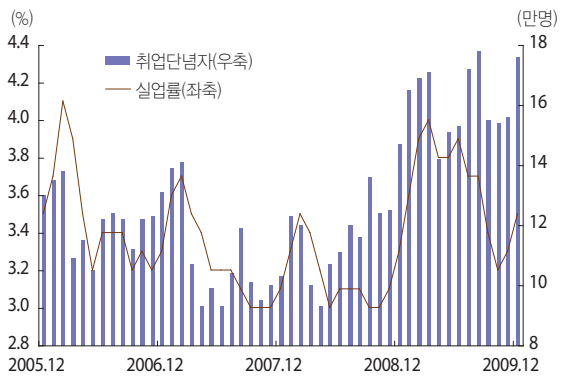
❍ 실업통계에서 제외되는 구직단념자의 수가 12월 17.6만명으로 '00.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던 8월 17.8만명에 근접하는 등 고용시장의 체감경기는 더욱 안 좋은 상황

■ 정부가 '25만+알파' 대책 등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려는 자세는 높이 살만 하지만, 아직 밑그림 수준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낮을 수 있고, 추가예산 책정이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또 다른 정부정책기조와 상충되어 시행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요인

통화유통속도



실업률 및 취업단념자



주 : 통화유통속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광의통화량(M2)으로 나눈 것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Ⅲ. 중소기업

중소제조업 경기는 전월대비 개선되었으나, 한편으론 경기둔화요인도 부각

■ 12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116.1을 기록하여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월대비로 2.8% 증가, 전년동기대비로는 20.3% 증가한 것으로 조사

❍ 전월대비 증가율은 기타 기계 및 장비, 가구,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가공조립형 부문의 호조로 2.8% 증가함

❍ 한편, 전년동월대비로도 20.3% 증가하는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여기에는 기저효과*('09.12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11.0% 감소)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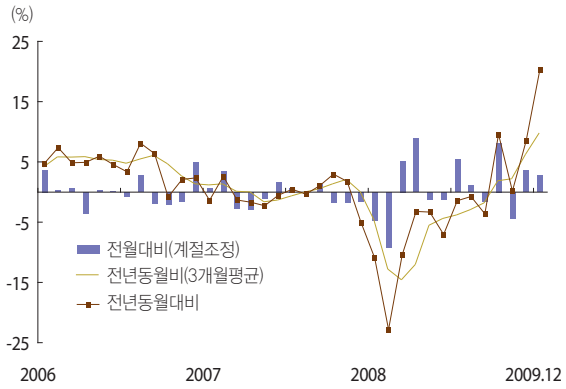
*기저효과(base effect) : 경제지표를 산출하는데 있어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경제지표가 실제 경제상황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현상

■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소폭 악화된 반면, 가동률은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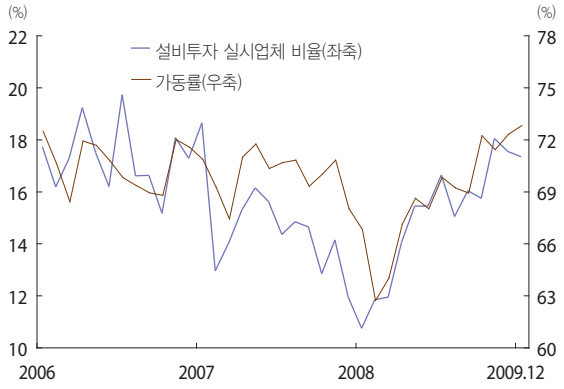
❍ 설비투자 실시업체 비율은 전월대비 0.2%p 하락한 17.3%를 기록

❍ 평균가동률은 72.8%로 상승하면서 '06.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소제조업 생산증가율 추이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및 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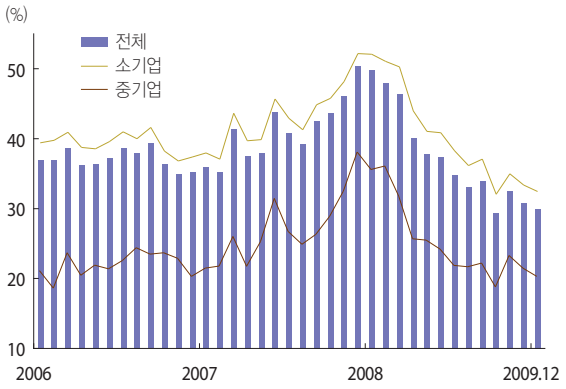
자료 : IBK경제연구소

■ 정부 재정지원 감소와 더불어 수주 및 수익성 둔화로 인해 중소제조업의 자금사정 또한 개선세가 둔화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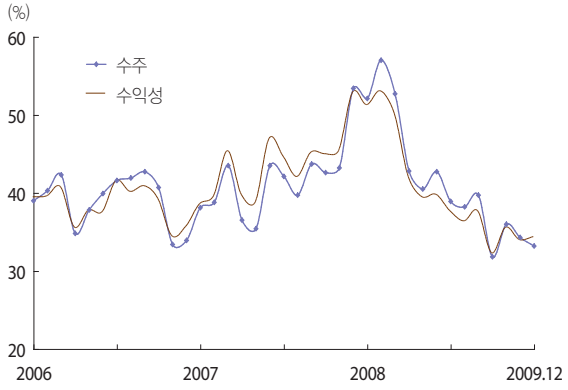
❍ 자금사정 곤란업체 비율은 '09.9월 최저치인 29.3%를 기록한 이후 개선세가 둔화되는 상황

❍ '09.9월 이후 수익성 악화업체비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수주도 개선세가 둔화추이를 보이는 등 향후 자금사정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중소제조업 자금사정 곤란업체비율 추이



수주 및 수익성 악화업체비율 추이



자료 : IBK경제연구소

■ 고용 동향은 14%대의 증가세를 보이던 고용 증가 업체비율이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크게 하락하여 전월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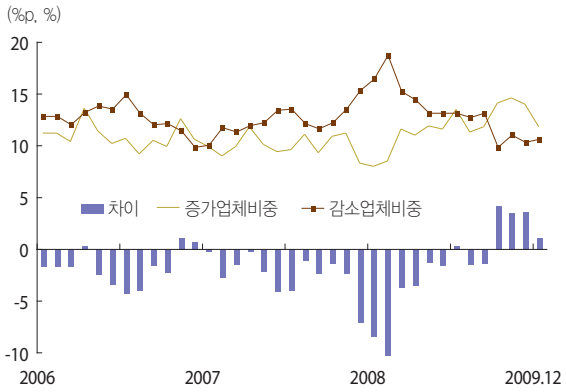
❍ 종사자수 증가 업체비율(13.9% → 11.7%)이 감소하고 종사자수 감소 업체비율(10.3% → 10.6%)은 소폭 증가

❍ 특히, 중화학공업의 증가-감소 업체비율 差(5.3%p → 1.9%p)가 경공업의 증감 差(0.8%p → -0.1%p)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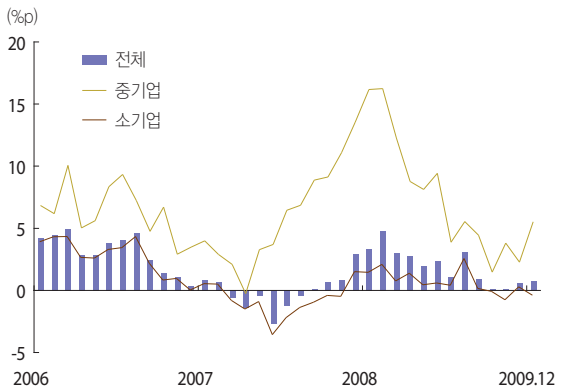
■ 재고 동향은 과잉업체 비율이 소폭 증가하고 부족업체 비율이 소폭 하락하여 과잉-부족 업체비율 差는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

❍ 특히, 소기업은 재고 과잉-부족 差(0.2%p → -0.5%p)가 하락한 반면, 중기업은 상승(2.2%p → 5.5%p)하여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나타남

중소제조업 고용 추이



중소제조업 재고 과잉-부족 추이



자료 : IBK경제연구소

Ⅳ. 금융시장

원/달러 환율은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

■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해 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으며, 주식시장의 조정가능성 및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 예상 등으로 시중금리는 소폭 상승할 전망

○ '09.12월 美 고용지표 악화 및 FRB의 저금리유지 발언으로 인한 美 국채금리 하락과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1월 금통위의 영향으로 시중금리는 소폭 하락

○ 美, 中 등에서 제기된 정책이슈들이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짐

○ 향후 경기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주식시장의 조정 가능성과 재정확대 지속을 위한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 전망은 시중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국내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여전해 원/달러 환율의 급변 가능성은 낮으나, 美 은행규제 및 中 긴축정책 가시화 우려 등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동성을 높일 전망

○ 연초의 원화강세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국내 요인의 영향이 컸으나, 1월 중순이후의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그리스 재정악화 우려 및 중국의 긴축정책 가능성, 미국의 은행규제 강화 등 대외요인에 의한 달러화 강세 전환 때문

○ 이처럼 현실화되지 않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보다 글로벌 경기회복세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

○ 따라서 향후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고용 및 소비 등 경기회복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

금리 추이



환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Ⅴ. 자금흐름

기업들의 연말 부채비율 관리 등의 영향으로 수신 및 기업대출 모두 큰 폭 감소

■ CD와 정기예금 등 은행 수신은 큰 폭 감소로 전환되었고, 자산운용사 수신도 MMF와 주식형펀드 중심으로 대폭 감소

○ CD의 대폭 감소는 은행의 예대율 인하노력 등에 주로 기인하였고, 정기예금도 연말 기업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예대상계 등의 영향으로 감소

▌주요 금융기관 수신 추이▐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07		2008		2009			'09.12월말
	연중	12월	연중	12월	연중	11월	12월	잔 액
은행 수신	59.6	-3.6	104.3	-8.2	54.8(72.6)	1.5(2.8)[3]	-8.3	1,007.5
(수시입출식[1])	-6.6	5.7	11.8	0.2	41.1	0.6	9.2	287.1
(정기예금)	11.9	-0.1	63.0	-0.8	39.1	4.5	-2.2	377.0
(CD)	28.8	-0.2	8.2	-6.0	-1.9	0.4	-12.1	103.0
(은행채)	34.0	-0.7	31.2	2.0	-19.3(-1.5)	-2.2(-0.9)	-0.7	176.0
자산운용사 수신	61.8	-0.4	63.0	12.8	-27.7	4.4	-11.1	331.8
MMF	-10.4	-5.9	42.2	8.6	-17.2	5.1	-6.2	71.7
주식형	69.9	9.8	23.9	0.6	-14.0	-0.7	-3.0	126.2
채권형	-9.6	-3.0	-10.5	0.0	15.8	0.5	-0.1	46.1
혼합형	-3.3	-4.1	-5.4	-0.9	-7.8	-0.5	-0.8	31.4
신종펀드[2]	15.3	2.7	12.9	4.5	-4.4	-0.0	-1.0	56.3
증권사 CMA	18.5	0.8	3.5	1.3	7.5	-1.3	0.4	38.2

주 : 1) 요구불예금 포함 2) 파생상품펀드 등 간접투자펀드 운용액 포함 3) ( )내는 산금채 및 은행채 이관분 포함
자료 : 한국은행(금융시장동향), 금융투자협회

■ 가계대출은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 확대에 힘입어 전월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기업대출은 2004년 이후 전년동월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기업대출의 큰 폭의 감소는 기업의 연말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차입금 상환 외 은행들의 대규모 중소기업 부실채권 상각·매각으로 인한 대출계수 감소에 주로 기인

▌기업자금 및 가계대출 동향▐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07		2008		2009			'09.12월말
	연중	12월	연중	12월	연중	11월	12월	잔 액
기업대출[1]	79.3	-3.8	78.3	-5.9	14.5	2.2	-11.7	506.2
(대 기 업)	12.5	0.0	30.3	-2.3	-5.2	-0.2	-3.8	75.5
(중소기업)	66.8	-3.8	48.0	-3.7	19.7	2.5	-7.9	430.7
기업직접조달[2]	12.9	-0.7	25.9	4.3	35.1	1.4	1.6	-
가계대출[3]	17.8	-0.3	25.0	1.6	20.1	2.6	0.5	408.6
(주택담보대출)	4.6	0.1	18.1	2.3	25.4	1.6	2.0	265.1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3.0	-0.4	6.8	-0.8	-4.5	1.0	-1.5	142.3

주 : 1) 원화대출(은행신탁 포함, 산업은행 포함) 2) 직접조달 = CP순발행 + 회사채 순발행 + 주식발행 3) 신탁포함,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자료 : 한국은행(금융시장동향)

Ⅰ. 역술로 본 2010년 경제전망

백호(白虎)의 해

2010년 경인(庚寅)년은 호랑이띠로 특히 백호(白虎)의 해라고 한다. 경인(庚寅)년의 천간(天干) 경금(庚金)이 백색을 의미하고 지지(地支) 인목(寅木)이 호랑이를 의미하므로 백호의 해라고 하는 것이다.

간지(干支)는 은나라시대의 거북이의 등(甲)과 짐승의 뼈(骨)에 점을 칠 내용을 새겨서 쓰여진 갑골(甲骨)문자에서 유래한다. 이 갑골문자로 기록된 갑골문에는 농업생산을 위하여 은나라 당시의 천문지식과 역법을 사용하였으며 날짜를 기록하기 위하여 간지(干支)를 사용하였다. 간지는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의 10간(干)과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의 12지(支)로 이를 순서대로 짝지어 나가면 60개의 간지가 되어 육십갑자(六十甲子)라고 한다.

육십갑자중 호랑이해는 갑인(甲寅), 병인(丙寅), 무인(戊寅), 경인(庚寅), 임인(壬寅)이 있으며 육십갑자의 순환에 의하여 경인(庚寅)년 백호의 해는 60년만에 도래하게 된다.

2010년 경제전망

12지(支)의 흐름은 인묘진(寅卯辰), 사오미(巳午未), 신유술(辛酉戌), 해자축(亥子丑) 4개의 큰 흐름으로 구분하는 데 인묘진은 봄, 사오미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2009 기축(己丑)년은 겨울의 마지막해이고 2010 경인(庚寅)년은 봄이 시작되는 해이다. 즉, 춥고 암울했던 어려운 겨울을 보내고 새롭게 떠오르는 희망의 봄이 시작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축(丑)년은 어려운 일이 있었고 인(寅)년은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솟아나는 해였다는 것이 입증된다.
1961 신축(辛丑)년은 혁명이 있었으나 다음해인 임인(壬寅)년은 3공화국이 시작되어 본격적인 고도성장의 기틀을 잡아나갔으며, 1973 개축(癸丑)년은 오일쇼크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나 다음해인 갑인(甲寅)년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시작하였고, 1985 을축(乙丑)년은 5공화국의 철권통치가 심하였으나 이듬해인 병인(丙寅)년부터 민주항쟁과 올림픽 유치 등으로 경제가 급성장하는 반전을 이루었고, 1997 정축(丁丑)년은 단군이래 최대의 위기라던 IMF체제로

온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으나 이듬해인 무인(戊寅)년부터 금모으기 운동과 IT산업육성 등으로 전세계가 깜짝놀랄 정도로 일치단결하여 IMF체제를 조기졸업하게 되었다.

2009 기축(己丑)년은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인한 美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가 대공황의 공포에 떨었으나 대한민국은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경제위기에 대처하여 전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았으며 2010 경인(庚寅)년에는 봄이 도래하는 해로 얼어붙었던 동토에서 새싹이 솟고 만물이 소생하는 기운이 강한 해로서 경제가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묘진의 해는 봄을 의미하고 봄은 산천초목이 녹색으로 뒤덮히는 계절로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성장동력의 녹색성장 5개년계획과 맞물려 경제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맺음말

인(寅)년은 역마(役馬)의 해로 새기운이 싹트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해이므로 녹색성장, 4대강 개발, 세종시 등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또한 인(寅)년은 봄을 의미하고 봄은 바람이 많은 계절이므로 변화가 심할 것을 암시하는 바, 환율이 불안정해지고 주식시장은 널뛰기를 할 것이고 물가도 급상승 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도 변화가 많으며 태풍 등 기상이변도 많은 해가 될 것이다.

수리역학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전망해보면 원/달러 환율은 1,000~1,100원으로 원화강세, 금리는 4~9%로 상승, 주식은 1,900에 도전해보며, 물가는 3%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별로 보면 섬유업, 녹색산업, 게임, 온라인, 풍력발전의 木산업과 반도체, 전자, 통신, 화학, 금융, 태양광발전의 火산업은 호황을 누리는 반면 기계, 조선, 자동차, 철강의 金산업과 건설, 광업의 土산업은 기운이 빠지므로 어려울 것이며 수산업, 운수, 유통업의 水산업은 신통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인년은 겨울과 봄의 전환점인 환절기이며 천간 경금은 숙살지기(肅殺之氣)로 무서운 기운도 내포하므로, 이 시기에는 3년 농사를 위해 쟁기를 손질하고 씨앗을 고르고, 일꾼들을 모으며,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어 하나하나 신중하게 준비하고 시작하는 시기이다. 그런데 서둘러 밭을 갈면 얼은 땅에 쟁기는 부러지고 씨앗은 얼어 죽게 돼 농사를 망쳐 버린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심스럽게 실행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호랑이가 먹이를 사냥할 때처럼...

내용문의 : 녹색성장지원단장 오상수(02-729-6960)

Ⅱ. 중소기업 CEO의 '경영 혜안'을 위한 지침(I)

전략이 없다면 방향 없이 제자리를 빙빙 도는 키가 없는 배와도 같다

중소기업 CEO들이 명심해야 할 '전략'의 기본 네 가지

❍ **전략적 모방의 딜레마** – 1등을 선점할 것인가, 2등으로 때를 기다릴 것인가

• 반드시 앞서가는 것만이 해법은 아니다. 컴퓨터 시장에서 델(Dell)의 입지는 기술 혁신보다는 이미 표준화된 기술을 대중시장에 도입하는 '능력'으로 만든 것이다. 각 해당 분야의 리딩 기업들은 선발업체가 만든 상품이나 전략이 확고하게 우수하다고 검증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모방하려 하지 않는다. 비즈니스에서의 경쟁은 대부분 '승자독식'이 아니므로,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방법이 유리하다. '전략적인 후발주자'가 되자.

❍ **전략적 고집** –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다

• 중소기업 CEO의 적절한 '고집'이 필요할 때가 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비타협'의 힘을 이용해 국제무대에서 확고한 입지를 굳힌 인물로 꼽힌다.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 '농(non)!'을 외침으로써 유럽 경제공동체의 의사결정을 프랑스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려놓았다. 하지만 지나치게 완고한 그의 고집 탓에 프랑스는 EEC의 발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고 장기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그 가격에는 안 판다'며 물건을 회수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을 아는 노련한 장사꾼이 되자.

❍ **전략적 협상** – 내 것을 잃는 것보다 더 큰 것도 있다

• 때로는 '전략적인' 하나의 선택이 성공을 이끌어 낸다. 스페인 장군 코르테스는 신대륙에 도착하자마자, 자신들을 싣고 온 배를 수장시켰다. 코르테스의 부하들은 싸워 이기지 못하면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코르테스는 부하들이 도망가거나 후퇴할 수 있는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신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권은 언제나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략적인 면에서 보면, 선택권을 제거하는 편이 더 좋은 경우가 많다.

❍ **전략의 피곤함** – 도가 지나친 전략은 없느니만 못하다

• '過猶不及(과유불급 :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이라는 말이 있다. 경영 전략도 예외는 아니다. 예루살렘의 어느 늦은 밤, 두 명의 미국인 경제학자가 택시를 잡아타고 호텔로 가자고 했다. 택시기사는 자신이 미국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미터기 요금보다 더 싼 값에 호텔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경제학자들은 2,500세켈(약 3달러)의 택시비를 2,200세켈로 깎아달라고 하였는데, 택시기사는 이에 분개하며 그 가격에 호텔에 갈

수 있는지 확인하라며 경제학자들을 출발지로 다시 데려다 놓았다. 결국 경제학자들은 다른 택시를 타고 2,200세켈의 택시비를 내고 호텔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게임에서는 이겼으나 30센트를 아끼자고 한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다. 협상에서 '자존심'과 '비합리성'은 아주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때로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 '미래'를 예측하여 현재에 '반영'하는 CEO만이 성공을 이루어낸다

❍ '역방향 추론'이란 가장 최종적인 미래의 의사결정을 예측한 다음, 그것을 활용해서 그 이전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다

• 효과적인 중소기업의 경영을 위해서는 최종적인 미래의 의사결정에 따른 현재의 선택이 필요하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려면 몇 가지 옵션이 있다. 버스를 이용할 것인가? 기차를 이용할 것인가? 등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동수단', '가격', '교통상황', '쾌적함' 등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선택이 이루어진다. 이렇듯 선택의 각 교차점에서 취할 수 있는 옵션들을 나타내는 로드맵에는 여러 개의 가지가 연속해서 생겨난다. 그리고 그 모양이 나무처럼 보인다고 해서, '의사결정 트리'라고 부른다. 미래를 내다보고 역방향 추론을 해야 하는 '의사결정 트리'를 통한 일련의 순차적인 의사결정 방식은 자신이 혼자서 특정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뿐 아니라 상대가 있는 상황에서도 유용하다. 특히 '상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나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미래 선택 사항까지 '예측'하여 새로운 형태의 로직 트리를 사용해야 한다.

❍ **브레인 스캐닝** – 상대의 수를 읽는다

• 진정으로 전략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려면, 상대의 관점이 되어보는 것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상대가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예측해야 한다. 완전히 상대의 입장이 되려면, 그들이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몰라야 한다. 그리고 내가 '상대가 이것이 목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목적이 아니라, 진짜 '상대의 목적'을 찾아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시나리오'의 수와 대응법을 연구할 때는, 외부인을 고용해서 상대편의 역할을 맡긴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를 살펴보고,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과 동기를 파악함으로써 대처방법을 도출한다.

* 본 내용은 애비너시 딕시트의 「The Art of Strategy – 전략의 탄생」에서 발췌하였으며, 3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입니다.

내용문의 : 금융경제팀 이상은 연구원(02-729-6897)

Ⅲ. 부동산시장 동향 및 이슈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 특별공급비율 조정

■ 수도권 외의 지역 청약 1순위 요건완화 및 지자체장에게 자율성 부여

○ 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청약 1순위 요건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현행 24개월 이상)을 단축하고 지자체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가능성

○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현행 24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되,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여부 및 적용비율에 대한 자율성 부여(현행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 85㎡이하 75%, 85㎡초과 50%)

○ 민영주택 청약시 적용하는 가점제를 수도권과 미분양이 많은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해소 차원임

○ 수도권에서는 청약가점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지자체장이 가점제 적용여부 및 적용비율을 자율 결정할 수 있으나, 가점제 시행권한 등을 지자체에 이양할 지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은 현행 가점제 적용

■ 공공주택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하고 특별공급 비율 조정 등 특별공급 관련 사항을 간소화했음

○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에 흡수하고 특별공급 비율을 축소 조정 및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면적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

- (공공주택) 특별 · 우선공급 70% → 특별공급 63%로 조정
- 노부모 부양자의 주택수요 2%를 감안하여 현행 10% → 3%로 조정
-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43% → 23%로 조정
- 신혼부부 물량을 30% → 10%로 하향조정(공공주택은 15% 유지)하되, 현재도 임대주택은 85㎡ 이하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면적을 60㎡ 이하 → 85㎡ 이하로 확대

전국 43개 마리나 개발 "본격 해양레저시대"

■ 국토해양부는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통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의 중장기 마리나항만 개발방향을 제시

○ 중장기 개발수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선정기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위치와 개발유형, 추정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2019년까지 권역별 개발수요에 따라 43개소를 최종 선정했음

○ 타 법에 의해서 수립된 관련 계획 및 지자체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전국 120여곳의 후보지를 선정한 후 권역별 개발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최종 선정

○ 권역별 예정구역은 수도권 5(왕산, 방아머리, 흘곳, 제부, 전곡), 충청권 4(석문, 오천, 홍원, 보령), 전북권 2(고군산, 비응), 서남권 4(함평, 목포, 화원, 팽목), 전남권 3(완도, 남열, 소호), 경남권 8(구산, 당항포, 물건, 하동, 명동, 삼천포, 사곡, 충무), 부산권 3(부산(북), 수영만, 백운포), 경북권 5(양포, 두호, 후포, 고늘, 진하), 강원권 4(강릉, 속초, 덕산, 수산) 및 제주권 5개소(강정, 김녕, 도두, 중문, 이호)임

• 항만법 및 어촌어항법에 의거하여 항만구역과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각각 13, 9개소

■ 마리나항만은 각 예정구역의 주요 도입시설, 수용 척수, 면적 등에 따라서 거점형, 레포츠형, 리조트형의 3가지 유형으로 설계

○ 거점형은 300척 수용에 12만㎡, 레포츠형은 100척 수용에 4만㎡, 리조트형은 200척 수용에 20만㎡ 규모로 개발될 것으로 계획됨

■ 본 기본계획에 포함된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 사업비는 운영 또는 개발 중인 마리나항만을 제외하고 총 1조 7천억 원 수준

○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사업시행자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할 계획

내용문의 : PB고객부 김일수 부동산전문위원(02-729-7189)

Ⅳ. 조직활성화를 위한 IBK의 변화관리 컨설팅

경영을 이어받은 차세대CEO, 제 2의 창업을 꿈꾸며 조직 재도약 준비

❍ 가업을 물려받은 대표이사 A는 조직 재도약을 위한 체계적 준비를 고민
❍ 하지만, 스스로 회사 워크숍을 진행해본 결과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함
❍ 이에 외부전문가로부터 변화 및 혁신 교육을 받고자 하는 니즈가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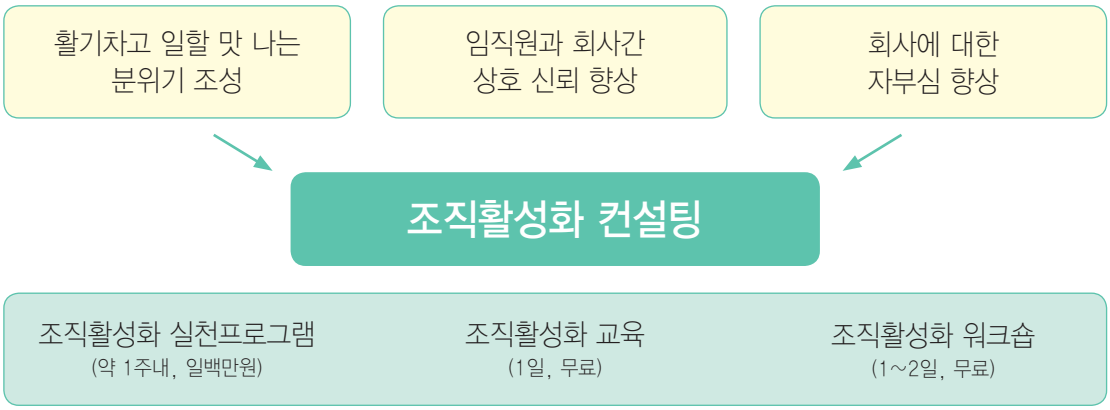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조직활성화 컨설팅 (워크숍) 실시

❍ CEO는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전략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원하였고 이를 통해 중간관리자 마인드 변화를 주고 싶어하였음
❍ IBK 컨설턴트가 CEO와 함께 전체 일정을 같이 구성하고 늦은 밤까지 직접 워크숍을 진행하여 CEO가 추구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함
❍ CEO가 직접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솔선수범으로 교육효과가 배가 되었고, 워크숍을 계기로 직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나눌 수 있게 되었음

변화관리 촉발을 위해 전문가의 활용 필요

❍ 변화관리를 전담할 조직 또는 직원 운용이 힘든 중소기업의 현실상 외부전문가 활용 필요
❍ 변화는 스스로 이루어야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으로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기업은행 조직활성화 프로그램 구성



컨설팅관련 문의 : 기업지원부 박영진 과장(02-6322-5178)

Ⅴ. 와인에 관한 그 첫 번째 고찰

엣지있게 와인 마시기



와인은 물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포도만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입니다. 따라서 알코올 함량이 적고 유기산과 무기질 등이 파괴되지 않은 채 그대로 간직되어있지요. 와인의 원료인 포도는 기온과 강수량, 토질 및 일조시간 등의 자연적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자라므로, 한 병의 와인 속에는 포도가 자라난 지방의 자연환경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2~3잔 정도의 레드와인을 마시면 심장병, 피부암 예방 및 치매 발병이 낮아진다는 발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와인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와인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해서 어떤 와인을 어떻게 마셔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2월호에서는 와인을 맛보는 방법과 종류 그리고 어떤 음식에 어떤 와인이 어울리는지 알아보고 조금씩 접근해 보겠습니다.

❍ 와인 맛보기

와인을 마실 때에는 우선 코로 냄새를 살짝 맡아보고 입술과 닿는 접촉감, 즉 알코올과 당도, 산, 탄닌[1] 등으로 이루어진 와인의 질감을 느껴보세요. 산도가 높고 알코올 농도가 낮은 화이트와인은 얇고 때론 날카로운 느낌을 주겠죠. 반면 알코올 농도가 높고 저 탄닌의 레드와인은 두툼하고 평온하며 부드러운 느낌을 줄 것입니다. 와인을 한 모금 입에 넣은 채 코로 숨을 내쉬어 그 향을 느껴보신 후, 입안 중간에서 산도와 탄닌의 강도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혀의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탄닌의 양과 성질, 알코올의 강도를 느껴보시고, 삼킨 후에는 목 넘김이 준 느낌과 입안에 어떤 여운과 풍미가 남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와인을 마신 후, 그 와인의 맛과 느낌을 표현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다”, “떫다”, “향기롭다” 등의 단순한 맛은 물론, 온갖 상상력과 어휘력을 동원하여, 친화적이지만 날카로운 느낌이 마치 ‘미실’ 같다, 혹은 건조하며 고집스러운 것이 “김유신” 같다는 과감하고 아낌없는 표현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입안을 떫게 만드는 요소. 포도껍질, 줄기, 씨앗 등에 들어있으며 오크통 숙성을 통해서도 얻어질 수 있음.

와인의 종류

❍ 레드와인 : 적포도를 으깨어 껍질째 발효, 독특한 색조, 떫은 맛과 신맛을 냄

- 가볍고 과일향이 풍부한 레드와인 – 탄닌 성분이 적고 라이트한 와인
- 미디엄 바디 레드와인 – 어느 정도의 탄닌 성분을 포함한 와인
- 풀바디 와인 – 탄닌이 많아 와인이 묵직하고 중후하게 느껴짐

❍ 화이트와인 : 껍질은 제거, 과즙만으로 발효, 투명하고 상쾌하며 달콤함

- 드라이 화이트 와인 – 과일향이 풍부하며 청량감이 있고 산뜻하고 깔끔한 맛
- 미디엄 스위트 와인 – 달콤, 새콤, 청량하며 실크처럼 부드럽게 넘어감
- 스위트 와인 – 포도가 완벽히 익었거나 수확할 시기를 한참 지나서 수확하여 만든 와인 (레이트 하비스트, 아이스와인 등)

❍ 로제와인 : 레드와인과 같은 적포도를 사용, 발효전이나 발효초기에 껍질을 제거하고 발효,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의 중간인 핑크빛

❍ 드라이와인 : 포도 속의 천연 포도당이 모두 발효, 단맛이 거의 없음

❍ 스위트와인 : 포도당이 남아 단맛 (드라이와인은 식사하면서, 스위트와인은 디저트로 즐기면 적합)

❍ 스파클링와인 : 와인속에 탄산가스가 스며듬, 스파클링와인으로 유명한 지역의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함



전통적으로 와인은 지역에 따라 그 특성이 분류되며 등급을 철저히 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와인의 지역과 등급은 일반적으로 와인의 라벨에 표시되어있는데, 라벨을 읽는 방법은 3월호에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에 따라 어울리는 음식

❍ 레드와인 – 각종 고기 그릴, 불고기, 갈비, 닭요리, 파스타, 피자, 삼겹살 등
❍ 화이트 와인 – 삼겹살, 생선요리, 어패류, 갑각류, 초밥, 생선회, 훈제연어, 닭요리 등
❍ 로제와인 – 중국요리, 한국요리, 인도요리 등
❍ 스위트 와인 – 케익, 디저트, 초콜릿 등
❍ 스파클링 와인 – 식전주 (식욕을 돋우기 위해 마심), (파티용) 카나페, 굴, 캐비어 등

와인 글라스의 특징


보르도 레드 와인 잔 브루고뉴 레드 와인 잔 화이트 와인 잔 샴페인 잔

와인 글라스는 와인이 생산되는 지역, 타입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양을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긴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의 빛깔과 투명함을 잘 볼 수 있도록 잔의 두께가 얇고 투명하게 만들어져 있지요. 종종 둥근 부분을 손으로 감싸고 마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경우이고, 다리부분을 잡고 마셔야 손의 열이 와인에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답니다. 둥글고 깊은 잔은 진한 향의 와인을 마시기에 좋고, 둥글고 넓은 잔은 은은하게 퍼지는 향을 가진 와인을 마시기에 적합니다. 샴페인 잔의 경우, 와인 속의 기포를 잘 보존하면서 마시기 위해 길고 좁은 형태의 잔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레스토랑이나 와인바 등에서 와인을 주문할 경우에는 소믈리에(와인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해당 레스토랑의 하우스 와인을 주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우스 와인은 일반적으로 레드와 화이트 두 종류이고, 글라스로 판매됩니다. 품질이 좋은 것들 중, 가격을 고려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아무래도 실패의 확률이 적겠죠. 만약 와인의 산지로 간 경우에는 당연히 로컬와인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지요.

와인을 처음 마시는 분은 아무래도 달콤하고 부드러운 화이트 와인으로 시작하여 익숙해지면 레드와인, 드라이 와인으로 영역을 넓혀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단맛에서 드라이한 맛으로, 도수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마셔보면서 와인의 산지와 제조회사, 포도 품종, 생산 연도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번 달에는 맛보고 싶으신 와인을 정하신 후, 이에 어울리는 음식을 드시면서, 맛보는 방법을 기억하셨다가 꼭 표현해보세요. 그리고 라벨을 적어 놓으셨다가 다음 3월호, '엣지있게 와인 권하기'편을 통해 라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문의 : 조용균 소믈리에(대학로 namu), 금융경제팀 이민재 선임연구원(02-729-6594)

경제지표

		2007년	2008년	2009년		2009년		
				2/4분기	3/4분기	9월	10월	11월
성장	GDP(%)	5.1	2.2	-2.2	0.9	0.2(4/4분기), 0.2('09년)		
	(전기대비)			2.6	3.2	6.0(4/4분기)		
경기	동행지수순환변동치	101.1	100.0	94.2	96.6	96.9	96.8	96.8
	선행지수전년동월비(%)	6.9	0.9	2.8	9.0	10.1	11.3	12.5
산업활동	광공업생산(%)	6.8	3.0	-6.2	4.2	11.0	0.2	17.8
	생산자제품출하(%)	7.1	2.4	-5.8	2.1	8.8	-0.6	15.3
	생산자제품재고(%)	5.7	12.3	-13.3	-14.4	-13.9	-16.2	-14.5
	제조업가동률(%)	80.1	77.2	73.6	78.9	80.2	77.3	77.3
	제조업BSI(업황)	85	74	73	86	90	92	89(89)
소비	소비재판매(%)	5.1	1.0	1.5	3.4	6.6	9.8	10.0
	소비자심리지수			103	112	114	117	113(113)
투자	설비투자추계(%)	8.2	-4.3	-13.4	-10.1	5.0	0.5	10.3
	기계수주(%)	19.8	-5.5	-11.2	6.5	31.9	3.0	56.6
	건설기성액(%)	6.6	4.7	6.6	-0.6	7.7	-5.2	4.2
	건설수주액(%)	19.3	-9.0	-2.0	9.1	58.4	27.2	77.0
고용	실업률(%)	3.2	3.2	3.8	3.6	3.4	3.2	3.3(3.5)
	취업자증가율(%)	1.2	0.6	-0.6	0.0	0.3	0.0	-0.0(-0.1)
서비스업	서비스업생산(%)	6.8	3.4	1.6	2.2	4.4	1.3	3.3
물가	소비자물가(%)	2.5	4.7	2.8	2.0	2.2	2.0	2.4(2.8)
	(전월비)					0.1	-0.3	0.2(0.4)
	생산자물가(%)	1.4	8.6	-1.0	-3.1	-2.6	-3.1	-0.4(1.8)
	(전월비)					0.1	-0.8	0.4(0.5)
	전국주택매매(%)	9.0	4.1	-0.6	-0.9	-0.5	-0.1	0.6(1.5)
	서울아파트매매(%)	16.0	5.4	-2.6	-1.5	-0.6	0.1	0.9(2.6)
국제수지	경상수지(억달러)	58.8	-64.1	131.8	103.0	40.5	47.6	42.8(15.2)
	수출증가율(%)	14.1	13.6	-21.0	-17.5	-9.4	-8.5	17.9(32.8)
	수입증가율(%)	15.3	22.0	-35.7	-30.9	-24.7	-15.8	2.4(23.9)

주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는 12월 수치

		2007년	2008년	2009년		2009년		
				2/4분기	3/4분기	9월	10월	11월
중소 제조업	산업생산(전체,%)	3.9	-1.2	-3.9	1.6	9.5	0.1	8.3
	(중화학공업,%)	3.5	-1.7	-4.8	1.7	10.8	0.6	9.2
	(경공업,%)	4.6	0.0	-1.8	1.3	6.5	-1.1	6.3
	설비가동률(전체,%)	70.4	69.7	68.8	70.1	72.2	71.4	72.3
	(소기업,%)	69.4	69.1	67.4	69.3	73.0	69.9	70.8
	(영세기업,%)	65.1	64.1	62.4	63.6	65.7	65.4	65.6
	(중기업,%)	77.0	75.5	74.4	76.2	77.8	77.1	78.3
	설비투자실시업체(전체,%)	17.3	13.9	15.8	15.6	15.7	18.0	17.5
	(소기업,%)	15.1	11.8	12.7	11.7	11.2	14.1	13.2
	(영세기업,%)	10.1	7.5	8.5	7.0	5.2	8.8	7.9
	(중기업,%)	33.1	28.8	29.0	31.5	33.7	33.7	33.5
	자금사정악화업체(전체,%)	37.0	42.4	36.6	32.1	29.3	32.5	30.8
	(소기업,%)	39.1	44.4	40.0	35.0	32.0	34.9	33.3
	(영세기업,%)	45.1	48.5	42.6	36.5	34.2	36.5	35.1
	(중기업,%)	21.9	28.1	23.7	20.7	18.6	23.1	21.2
	중소제조업고용(증가,%)	10.8	9.8	12.2	12.3	14.0	14.5	13.9
	(감소,%)	12.4	12.9	13.1	11.9	9.8	11.0	10.3
	(증감차,%p)	-1.6	-3.1	-0.9	0.4	4.2	3.5	3.6
	BSI 실적(기준=100)	84	71	87	91	144(4/4분기)		
	전망(기준=100)	106	98	90	114	104('10.1/4분기)		
	어음부도율(%)	0.02	0.03	0.03	0.02	0.02	0.02	0.04
	신설법인(월평균, 개)	4,505	4,238	4,820	5,087	5,193	4,540	4,690
	부도법인(월평균, 개)	126	157	113	89	102	87	90

주 :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7년	2008년	2009년		2009년		
				2/4분기	3/4분기	10월	11월	12월
자금시장*	총수신(은행)	5.0	8.7	8.5	9.8	-6.8	1.5	-8.3
	(자산운용사)	5.1	5.3	-3.8	-9.4	-7.3	4.4	-11.1
	가계대출	1.5	2.1	2.6	1.6	1.4	2.6	0.5
	(주택담보대출)	0.4	1.5	2.4	1.9	1.4	1.6	2.0
	기업대출	6.6	6.5	0.9	2.8	2.1	2.2	-11.7
	(대기업)	1.0	2.5	-1.5	0.7	-0.2	-0.2	-3.8
	(중소기업)	5.6	4.0	2.4	2.1	2.2	2.5	-7.9
금리	콜금리(%)	4.77	4.78	1.88	1.97	1.99	2.00	2.00
	국고채3년(%)	5.24	5.27	3.89	4.30	4.47	4.32	4.24
	회사채3년(AA-, %)	5.70	7.02	5.35	5.59	5.60	5.43	5.35
환율	원/달러(₩)	929	1,103	1,289	1,241	1,175	1,164	1,166
	엔/달러(¥)	117.8	103.3	97.4	93.6	90.4	89.3	89.7
	원/100엔(₩)	789	1,077	1,323	1,325	1,301	1,304	1,301
	달러/유로($)	1.371	1.471	1.362	1.429	1.483	1.492	1.461
국제금리	미국국채10년(%)	4.63	3.64	3.30	3.50	3.36	3.39	3.59
	일본국채10년(%)	1.67	1.49	1.44	1.34	1.32	1.34	1.26
유가	WTI($/bbl)	72.4	99.8	59.8	68.2	75.8	78.2	74.6
	Brent($/bbl)	72.7	98.3	59.9	68.9	73.9	77.6	75.2
	Dubai($/bbl)	68.2	94.3	59.3	67.9	73.2	77.6	75.5
원자재	금($/온스)	696	872	922	960	1,043	1,127	1,132
	전기동($/톤)	7,096	6,884	4,690	5,848	6,311	6,699	7,018
	알루미늄($/톤)	2,662	2,620	1,524	1,837	1,915	1,982	2,214

주 : 기간중 평균

*단위 : 조원, 기간중 말잔 증감액, 연간 · 분기 자료는 기간중 월평균 증감액

MEMO

MEMO